

# 증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14

## 대한교과서 설립을 전후한 초창기 교과서업계 주변

◇말씀해 주신 분

**최장수씨**

(82 · 한국교과서주식회사 사장)

교과서는 한나라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해방전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교과서출판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최장수씨는 해방후 교과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대한교과서의 설립과, '대한문교서적'(현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을 정상케도로 올려놓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로부터 당시 교과서출판계의 이야기를 듣는다. 대담은 본지 편집위원 이경훈씨가 맡았다.

— 최선생은 해방전후 우리나라 교과서출판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초창기 교과서출판사업에 큰 공로를 끼친 분으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이러한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방전후 우리나라 교과서출판계의 상황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교과서사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내가 교과서출판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 저는 총독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주군수로 재직하고 계셨던 미야시게(宮重)씨가 관직을 사임하고 '조선서적인쇄'에 인사부장으로 가게 되면서 저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그의 추천을 받고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조선인으로서 유일하게 경영진 간부였던 방태영 선생이었는데 그가 저더러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월급 85원에 판매과장자리를 주더군요. 도서관에 있을 때 제가 받은 월급이 55원이었으니 파격적인 대우였지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 조선서적인쇄는 어떤 일을 하던 회사였습니까?

**최장수** — 당시 조선서적인쇄는 국민학교 국정교과서를 생산하여 전국 13도에 공급하는 일과 화폐제조 업무를 했지요. 그리고 해마다 국민학교 졸업생 50명을 채용하여 인쇄기술자로 양성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일도 제가 교도과장 직책을 맡으면서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 당시 교과서 인쇄는 조선서적인쇄가 전담한 것이었습니까? 당시의 다른 인쇄소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최장수** —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조선서적인쇄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던 곳이고, 중등학교 교과서는 '조선교학도서'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홍보물이나 관보를 인쇄하던 '조선인쇄'가 있었고 일본인이 운영하던 순수민간 인쇄소로 '대해당'(해방후 이강림씨가 '고려문화사'로 개칭하여 운영했다)이 있었지요.

— '고려문화사' 이야기를 듣고자 이강림씨를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얼마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애석하기 그지없이 생각하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고려문화사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최장수** — 글썬요, 대해당이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최초로 일인이 설립한 민간 인쇄소였고 읍책인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 큰 고심거리였던 인쇄시설 보존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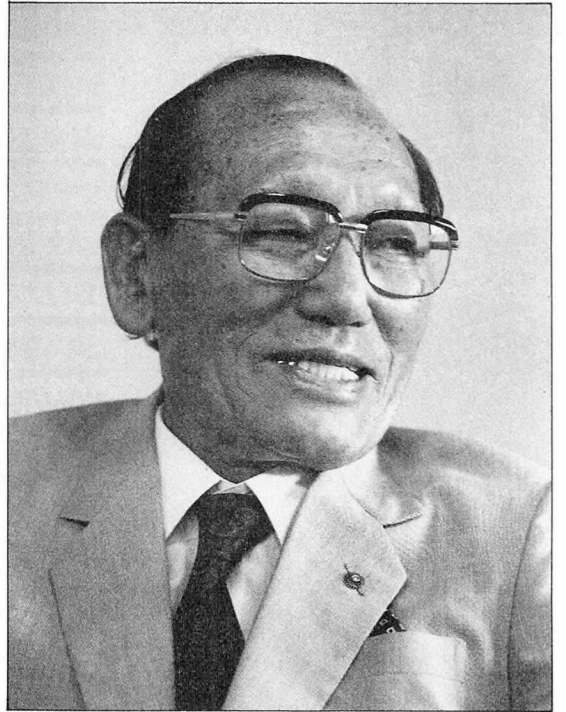
— 해방후 조선서적인쇄의 변화와 선생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해방을 맞은 후 제가 가장 고심했던 일은 방대한 인쇄시설을 어떻게 보존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서적인쇄는 활판기 10여대와 2색도 읍책기, 그리고 자동제책기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혼란속에서 많은 인쇄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이었으니 염려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때 조선서적인쇄의 직원이 700여 명에 이르렀는데 간부로는 제가 유일한 조선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인쇄시설을 보존하는 것이 직책상, 양심상 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도 이를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제말을 잘 따라주어 유리 한장, 활자 하나 손상없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 당시 상무로 계셨다는 방태영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장수** — 해방후에 우리가 그분을 관리인(당시에는 사장을 그렇게 불렀다)으로 모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행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 미군정청의 요구로 인해 사임

**“교과서의 질적 발전과 민주적인 교육 풍토를 위해서는 국정화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교과서가 국민교양의 기본교재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정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장수씨

을 하였고 뒤를 이어 김호연씨가 2대 관리인으로 취임했습니다. 해방되던 해 9월 20일로 기억됩니다만, 미군 120명이 난데없이 회사로 진입하여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서적인쇄가 맡고 있던 조폐기능을 정지시키고 조폐기구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미군 주둔후 김호연씨가 인사관리를 자의적으로 하니 까저를 3대 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관리인 자리를 맡은 후 저는 한 2년간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군정하였었기에 그때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박흥식씨나 오천석씨 같은 분과 친분이 두터웠던 조진주씨가 4대 관리인으로 임명되게 되어 저는 조선서적인쇄를 떠났지요.

— 해방후 참으로 파란많은 조선서적인쇄의 모습이 일제에서 미군정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관리인으로 재임하셨던 기간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아무래도 당시 우리 사회전체가 좌 · 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격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겪었던 곤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쇄소치고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두명씩 속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지요. 조선교학도서 최상윤씨 같은 분은 불쌍할 정도로 수모를 당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대적인 조류 탓인지 관리권을 달라, 상여금을 달라고 하면서 사표를 종용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탓인지 그다지 큰 불상사는 없이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지요. — 역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조선서적인쇄를 나오시고 난 후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최장수** — 그러니까 해방후, 47년경인가 봅니다.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 최현배 선생이 출판, 인쇄인 50여명을 불러 모아놓고 실업계 교과서 편찬사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실업계 교과서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난 뒤 우리말로 된 교과서 편찬작업은 시대적 과제였지요. 다행히 인문교과서의 편찬작업은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된 국어교과서 편찬을 필두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업전문 교과서는 전무한 형편이었으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나는 그 절박함을 인식하고 내가 이 일에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싶어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 중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병준, 서복환, 백남훈, 이대의, 민장식, 홍석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도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고 섣뽕 응해주지도

않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하겠다고 한 일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시 문교부 부장이었던 오천석박사를 찾아갔지요. 주식회사를 만들겠노라고, 오박사가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하더니 현금 8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 5천만원은 지방 공급업자들에게서 받으면 될 것이니 3천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 3천만원이 문제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함께 해보겠다고던 이용규(박문서관 대표), 신계영(육일서점 대표)씨가 번갈아가며 발뺌을 하고 번복을 했을 때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오천석박사에게 큰소리 쳤던 저 자신의 체면도 문제려니와 교과서사업의 의의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화당’의 이근택씨를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고개를 흔들더군요. 그리고 있는데 어느날 지금 종로5가에 있던 ‘문화당’이라는 인쇄소의 민오식 상무가 저에게 문화당 사장인 김기오씨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기오씨를 찾아갔지요. 그분이 두말도 없이 “해봅시다”했을 때는 구세주를 만난 심정이었습니다.

— 김기오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최장수** —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지요. 일제 때는 신간회에서 활동하셨던 민족주의자이시구요. 제가 그분을 보러 인쇄공장 옆의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받았던 인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랄까 석굴암의 부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배짱도 두둑한 분이어서 그분이 이 사업에 섰다 뛰어든 것도 당신의 자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시 신탁은행 두취였던 오위영씨와 동향이셨던 관계로 은행대출이 용이했기 때문에 돈을 대출받아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본다는 대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던 날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는데도 그분은 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앉아서더군요. 기분이 안 좋았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분이 무슨 병인가로 다리를 절단하셨더군요. 그러니 일어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 그때 설립했던 회사이름이 무엇입니까? 설립과정이나 한 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회사이름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였습니다. 회사설립은 김기오씨와 만난 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하다가 우리 정부가 들어서던 해인 48년 9월 24일자로 정식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초대사장이었던 김기오씨.

등기를 마쳤지요. 당시 경영진에는 사장 김기오씨, 부사장에 이용규씨, 전무 이구중씨 그리고 상무를 제가 맡았습니다. 당시 교과서 출판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 인쇄공정, 심지어 전표관리에 이르기까지 저는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 결국 대한교과서는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교과서사업의 의외에 찬동한 선생님 같은 분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문교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지요. 또 대한교과서가 편찬한 책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장수** — 48년 4월 17일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설립준비가 본격화되었을 때 문교부에서 전국의 국정교과서 판매업자들에게 주식 공모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공고를 해주었지요(48년 5월 22일). 이에 150여 명의 주주가 참여하게 되었고 자본금 8천만원으로 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 국정교과서 생산공급을 대한교과서에 일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서 대한교과서에서는 중·고등 국정교과서 생산, 공급을 전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대한문교서적과도 인연맺어

— 선생이 대한교과서 설립의 산파역할을 하신 게 되는군요. 대한교과서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대한교과서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에 김기오씨, 이수택씨와 제가 구속될 뻔한 일이 있었지요. 당시 문교부가 유네스

코에서 종이를 무상원조받고 있었고 우리는 어음을 떼주고 그 종이를 갖다 쓰곤 했었는데 그것이 검거의 이유였습니다. 정부의 재산을 임의로 쓴다는 것이었지요. 별 탈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시 법정에 나갈 때 김기오씨를 제가 등에 업고 나갔고, 마음이 유난히 약한 이수택씨가 겁을 잔뜩 집어 먹고 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웃음)

— 그렇다면 ‘조선서적인쇄’와 대한교과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최장수** — 연관이 없지요. ‘조선서적인쇄’는 제가 나오고 난 뒤에도 조진주씨가 맡아서 6·25가 나기 전까지 계속 초등교과서 생산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전쟁이 나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부산 피난지에 있을 때는 문교부가 더이상 조선서적인쇄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출판인들을 모아 입찰을 시켜 교과서 생산권을 주었습니다. 입찰이 낙찰되어 생산된 책들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한문교서적’입니다.(52년 7월 15일 설립).

문교부가 사학재단을 살리기 위해 교과서 공급권을 준 것이지요.

— 대한문교서적은 현재 국정교과서의 전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대한문교서적 일에도 관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대한문교서적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장수** — 6·25가 발발하자 대한교과서에서도 일이 없어 그냥저냥 지내고 있는데 서원출 선생(당시 보성중학교 교장)이 나에게 조동식 선생(사학재단대표)이 문교서적을 만들어 자신이 이사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나더러 좀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당시 딱히 하는 일이 없었던 상황이라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9·28 수복후 당시 책임자로 와있던 로스웰씨와 함께 기계를 도입하고 공장부지를 선정하여 공장설립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공장부지를 물색하려 다녔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로스웰씨의 짐차를 타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시피 했지요. 그의 말인즉 한강이북은 안되고, 큰길가여야 하고 지대가 높아 선전효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우연히 적산으로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던 현재 국정교과서자리에 부지 5천평을 발견하게 되어 평당 54원에 샀지요. 지금 그 땅이 못가도 평당 300만원은 한다 하니 제가 국정교과서 재산 불리는데 큰 기여

를 한 것입니다. 술을 사도 한잔 크게 살 만한데...(웃음)

—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 재산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최장수** — 예, 현재 국정교과서 재산중 사학재단에 귀속된 것은 3%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에 5% 내지 8%의 보조금을 일반주주들은 개별적으로 타갔었는데 비해 정부는 그것을 누적시켜 주식을 늘려갔던 것이지요. 교과서 편찬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여 사학재단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학재단연합에서는 근래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기계야 유네스코 원조로 구입한 것이었지만 공장부지는 사학재단의 민간자원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러니 부지의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등은 사학재단으로 할당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선생님은 해방전 ‘조선서적인쇄’에서 쌓으신 경험을 토대로 해방후에는 대한교과서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고 대한문교서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군요. 끝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교과서편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들려주시지요.

**최장수** — 저는 1976년 IBA(국제출판협회)총회에서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교과서의 질적 발전과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위해서는 교과서 국정화의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교과서가 국민교양의 기본교재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정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록·정리 박남정 기자